

도시의 녹지공간을가꾸는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

황석중 박사

클라인 가르텐(Kleingarten)이란

독일어로 작은 정원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도시 구역 안에 집단적으로 조성되어있는 정원을 의미한다.



▲ 도심에 있는 클라인 가르텐

클라인가르텐은 주거용 주택과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는(대개 도보로 10-30분 정도) 도시민들의 야외 정원이다. 주로 주택에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 주민들이 사유지를 임대해서 이용하고 있다.

발상과 근원

최초의 클라인 가르텐이 독일에서 생기게 된 원인은 19세기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당시에는 적십자사와 베르린교외 녹지대에 오두막집들에서 집단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주로 가난한 도시민들이 양식 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라인 가르텐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오늘날의 클라인 가르텐은 의사이며 교육자인 독일제국의 Dr. Daniel Gottlob Moritz Schreber(1808-1861)박사가 주창한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클라인 가르텐을 일반적으로 슈레버가르텐이라고 부른다.

평생에 슈레버 박사는 한결 같이 모든 환자들에게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푸른채소를 가꾸는 농사일을 하라는 처방을 써 주었다고한다. 그는 이미 백여년 전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들에서 농사일 하는 것이 어떤 특효약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에 따라 도시 인구가 늘어 늘어나면서 햇볕도 안드는 응달의 좁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람을 병들게하는 주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슈레버 박사는 고향인 라이프치히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하였다.

1864년 5월 10일 슈레버 박사의 사망 2주기를 맞아 그의 사위이며 라이프치히학교의 교장인 Dr. Ernst Innocenz Hauschild에 의하여 최초의 슈레버가르텐협회 설립되어 그것이 오늘날 독일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클라인가르텐의 효시가 되었다.

중요한 목적은

첫째: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운다.

당초 하우셴트 박사는 슈레버가르텐운동을 전개 하면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를 설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까지도 클라인가르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다. 최초 슈레버가르텐을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하면서 학생들을 보살피 주던 선생님인 Heinrich Karl Gesell은 채소묘상을 만들어 어린학생들에게 씨뿌리고 가꾸고 수확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릴 때부터 농사일 몸소해 보면서 자란 어린이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전하다. 이는 학생들을 자연과 환경에 친화적



인 국민으로 양성한다는 독일의 교육 목표에도 잘 부합된다.

둘째: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휴양공간이 된다.

맑은 공기, 햇빛, 녹색채소와 아름다운 꽃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으면 도시생활에 지친 심신을 휴식하기에 합당하다. 따라서 클라인가르텐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한다.

셋째: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채소포는 클라인가르텐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각종 채소들을 계절 따라 충족하게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수 가꾸고 수확하는 재미는 클라인가르텐 애호가들이 여가를 즐기는 취미생활의 큰 몫을 차지한다.

넷째: 도시에 녹색공간을 제공한다.

클라인가르텐은 도시 관내에 집단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에도 좋고 도시내의 녹색공간으로서의 공익적인 기능도 크다. 또한 정원집단은 개방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구경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땅의 소유주와 임대료는

주정부, 시군, 철도국 등 거의가 공유지이며 특히 시유지의 비율이 높다. 한 구획(Parzelle)의 크기는 200~400㎡이며 대개 300㎡이다. 한 가구당 1구획씩 임대하여 독자적으로 취향에 따라 정원 조성을하며 임대료는 대개 연간 15 ~ 20유로(약 20,000 ~ 30,000 원) 범위이다. 임대료는 시유지의 경우 시에 납부하며 이 이외에도 협회 운영비로 한 구획당 연간 30유로(약 43,000 원)를 소속 되어 있는 협회에 납부한다.

클라인가르텐 법률은

1983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독일연방 클라인가르텐법에 의하면 오늘날의 클라인가르텐은 이용과 휴양을 위한 정원으로 정의되어 있다. 클라인가르텐은 일반 클라인가르텐과 영속적 클라인가르텐으로 나뉜다.

일반 클라인가르텐은

- 1) 농작물재배는 자가수요와 여가활용 정도의 규모로서 이용하되 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대량재배 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 2) 여러개의 정원이 집단으로 조성된 단지내에는 예컨대 도로, 놀이터, 공동회관등 공동 이용시설을 구비해야된다.

영속적 클라인가르텐은

단지 조성 설계상에 영속적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확정되어 있어야하며

- 1) 한 오두막집당 최대한 허용되는 건평면적(대개 6평 이상건축은 불가), 지붕과 처마의 높이, 지붕의 모양, 재료, 색깔, 기초 건축에 관한 규정과
- 2) 오두막의 이용(휴식을 위한 이용은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해서는 안됨)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하며
- 3) 회관건물의 건축도 규정에 따라야 되며
- 4) 정원 녹화계획과 식물의 종류도 규정을 지키며
- 5) 단지 전체의 외곽 울타리 및 여타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와 크기도 규정에 맞도록 해야된다.

클라인 가르텐은 주말농장인가?

클라인가르텐을 우리말로 주말농장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이는 전혀 합당치 않다. 클라인가르텐을 관리하려면 식물의 생육기간 중에는 매일 또는 하루에도 몇번씩 둘러서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말에만 쉬려고 이따금 들리는 별장정도로 생각 하는 사람은 당초에 회원될 자격도 없으며 설사 회원이 되었더라도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 정원 관리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직접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자진해서 반납 해야 되며 후임자는 단지위원회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대개 어린애가 많은 가정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클라인가르텐은 집단 조직체로 운영되므로 관리가 부실해서 정원이 보기 흉해지면 강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농작물 가꾸는 일을 즐기고 특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회원이 되기가 쉽지 않다.

위 글은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 "도·농녹색교류국제세미나"에서 황석중박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